

## Let's Security

## 2007년 개인정보 침해 상담 및 신고가 늘어났다

최근 1~2년 동안 개인정보보호라는 말을 무척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만큼 개인정보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으며 이는 곧 개인정보유출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그만큼 많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얼마 전 개인정보 침해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 발굴 및 개선을 목적으로 KISA 내 설립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전화 국번없이 1336, www.1336.or.kr)가 지난 2007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상담 및 신고민원 통계 및 동향 분석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국내 개인정보보호 사건사고의 요약본이라고 볼 수 있는 이번 자료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죠.

정보보호뉴스 취재팀

이번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한 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민원 및 상담 건수는 총 25,965건으로 2006년 접수된 23,333건 보다 약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치상으로 본다면 하루 평균 약 71건의 상담 및 민원이 이뤄진 셈이죠. 이렇게 적지 않은 수치가 나타난 배경에는 기관을 사칭한 전화사기(보이스 피싱)에 대한 예방 및 피해구제 문의가 큰 공로(?)를 세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여기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일반 사용자들의 관심과 의식이 과거보다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35	11,164	17,956	17,777	17,569	18,206	23,333	25,965

▲연도별 개인정보 침해 관련 민원 현황(단위:건)

## 마케팅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

2007년 접수된 개인정보 민원의 특징으로는 '전화사기 관련 민원의 다양화',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등 개인정보 유출 관련 민원 증가', '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 TM 지속', '인터넷 사업자의 기술적 보호조치 오류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전화사기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와 고객 유치를 위한 기업의 불법적인 마케팅 행위들이 큰 문제를 야기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구체적인 침해유형별 민원현황을 살펴보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 개인정보 유출 관련 민원이 2006년과 비교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민번호 도용 관련 민원은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전체 민원 중 상당한 비중(35%)을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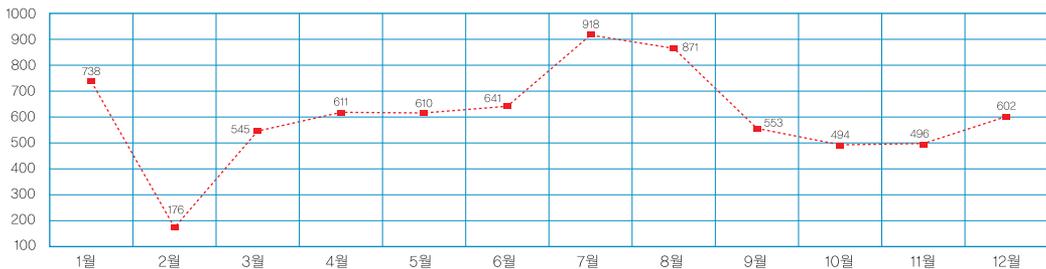
사업별 주요 침해유형에서는 유무선 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고객정보를 활용한 불법 텔레마케팅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신시장이 포화되고, 결합상품(인터넷 TV와 인터넷 전화 상품을 결합한 상품 등)의 출현으로 치열한 가입자 유치경쟁이 이뤄지면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분쟁과 상담도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중소기업의 인터넷 사업자(포털, 게임, 쇼핑몰 등)들이 여전히 회원탈퇴 요구 불응 또는 가입 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한 반면, 그에 상응하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는 미비해 개인정보 노출 관련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접수 유형	2006년	2007년	증감율 (%)
	건수	건수	
이용자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2,565	1,166	▼ 55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 또는 명시 의무 불이행	27	7	▼ 74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61	51	▼ 16
고지·명시한 범위를 초과한 목적의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917	1,001	▲ 9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훼손·침해 또는 누설	206	123	▼ 40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고지의무 불이행	5	2	▼ 60
영업의 양수 등의 통지의무 불이행	11	14	▲ 27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지정	23	10	▼ 57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	632	522	▼ 17
수집 또는 제공받은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266	146	▼ 55
동의철회·열람 또는 정정 요구 등 불응	923	865	▼ 6
동의철회·열람·정정을 수집방법보다 쉽게 해야 할 조치 미이행	484	461	▼ 5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23	14	▼ 39
주민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	10,835	9,086	▼ 16
기타 (정보통신망법 규정 외의 침해유형)	6,355	12,497	▲ 97
합 계	23,333	25,965	▲ 11

▲2007년 개인 정보침해 유형별 현황

### 취약계층 겨냥한 전화사기 정말 문제

한편, 지난해 많은 사람들을 짜증나게 했던 전화사기, 일명 보이스 피싱과 관련된 민원은 총 7,255건으로 전체 민원의 28%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봤을 이 보이스피싱은 지난해 상반기까지 증가추세를 보인 이후, KISA의 '보이스피싱 예방 10계명' 홍보를 비롯해 김·경의 대대적인 수사 강화, 범정부 차원의 대책 수립 등으로 2007년 하반기 이후부터 감소 추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전화사기 관련 민원 추이(단위:천)

전화사기 건수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전화사기는 금융기관은 물론,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심지어 법원·검찰 등 주요 국가기관까지 사칭하는 등 사칭대상이 다양해지고, 또 대담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한 기관 사칭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 '체포되지 않도록 통장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밝혀라' 등의 표현도 서슴없이 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한 해 많은 홍보 및 대응조치로, 전화사기에 걸려든 피해자는 줄어든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까지도 전화사기로 인한 개인정보유출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관련 정보습득 속도가 늦은 가정 내 어린이나 노인, 혹은 농어촌 등지의 이용자를 타깃으로 한 전화사기로 인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부모님들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게 되는 사연을 자주 접하게 돼 다시 한 번 가정 내 '보안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는 만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부모님에게도 다시 한번 개인정보 침해 대응요령에 대해 말씀드려 보는 것은 어떨까요! **S**